

삼성전자, ‘EHS 히트펌프 보일러’ 광주서 생산

광주사업장에 생산 라인 구축…연간 10만대 가능
시생산 돌입…완제품 품질 검증 후 내달 본격 양산

삼성전자가 정부의 난방 전기화 보급사업에 발맞춰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광주에서 생산한다.

24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광주사업장 제2캠퍼스 내 2132㎡ 규모의 ‘EHS 히트펌프 보일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지난 19일부터 시험생산에 돌입했다.

회사는 공정과 설비의 안정성을 검증하고 완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양산 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난방 전기화 사업에 참여하는 히트펌프 제조사 중 국내에 생산라인을 구축해 해외 생산을 대체하며 ‘국내 리쇼어링’을 단행한 것은 삼성전자가 처음이다.

완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핵심 부품의 생산과 제조 공정 전반의 국내 투입 비중을 확대해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국내 신규 생산라인에서는 연간 10만대 이상의 ‘EHS 히트펌프 보일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되는 히트펌프 제품은 전량 국내에 판매된다.

신규 생산라인이 구축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삼성전자의 주요 프리미엄 가전을 생산하며 축적한 제조 기술과 품질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광주사업장의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난방 전기화 보급 확대와 히트펌프 대중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개발·제조·품질 간 연계를 한층 강화해 시장 요구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신규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는 ‘EHS 히트펌프 보일러’는 자연상태의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해 실내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난방 솔루션으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



삼성전자가 광주사업장 제2캠퍼스 내 2132㎡ 규모의 ‘EHS 히트펌프 보일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지난 19일부터 ‘EHS 히트펌프 보일러’ 시험생산에 돌입했다.

대비 5배에 가까운 열을 생성할 수 있는 고효율 제품이다.

에너지 효율이 100% 미만인 화석연료 기반의 보일러와 비교해 에너지 효율이 더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다.

또 가정 내 설치된 태양광 설비 등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히트펌프 구동에 활용할 경우,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 DA사업부 임성택 부사장은

“히트펌프 제품의 국내 생산 체제 구축으로 난방 전기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히트펌프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축적한 히트펌프 기술력과 국내 제조·서비스 경쟁력

을 결합해 한국 주거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EHS 히트펌프 보일러’ 출시와 함께 전국 단위의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내 히트펌프 시장의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제주도에서 진행된 난방 전기화 보급 사업에 참여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418가구 규모의 2차 보급 사업에도 참여해 공급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지역별 기후와 주거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확보하기 위한 실증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양평, 충주, 남해 등 전국 각지의 실제 주거환경에서 ‘EHS 히트펌프 보일러’의 난방·온수 성능과 에너지 효율 등을 검증하고 있다.

제주도와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삼성물산 주거연구소에서는 난방과 난방, 온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할 수 있는 ‘EHS 올인원’ 솔루션을 실증하며 단독주택부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거 환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인근 마을서 ‘주민 설명회’

6월 백야·외치마을 이어 3번째 ‘소통의 장’ 마련
안전 최우선 약속…‘지역 자부심 높일 기업’ 강조

금호타이어가 함평 신공장 건설 부지 인근 주민들을 만나 소통했다.

2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최근 함평군 월야면 달맞이문화센터에서 월야2리 마을 주민들과 영월 1·2리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함평공장 건설 관련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6월 백야·외치마을에 이어 세 번째로, 김성현 함평공장 건설팀장, 윤현석 관리팀장 등 관계자 및 함평군청 관계자,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안전’과 ‘주민 편의’를 가장 중점에 두고 설명회를 진행했다. 주민들에게 공장 조감도와 함께 공사 추진 일정 등을 공유하고 안전 관리 계

획을 설명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을 위해 공사 시작 단계부터 공장 후면도로(마을 앞 도로)를 전면 통제했고, 공사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고 과속·과적을 방지했음을 설명했다.

현장 진출입 도로에 교통신호수를 상시 배치하며 부지 주변 차량 보호와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분진과 소음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가설 방음벽 설치와 공사용 차량 토사 방출 차단을 위한 세륜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주기적으로 소음 측정을 통해 관리하고 살수시설 설치 및 살수 차량 운영, 현장 주변 주기적 청소 및 분리수거



최근 정영모 금호타이어 함평공장건설단장이 함평 달맞이문화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했다.

관리를 철저히 한다.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장 가동시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물류 차량은 원재료 입출 시 공장 전면도로만을 사용하게 해 마을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없앤다.

또 친환경 LNG 연료를 100% 사용해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최첨

단 백필터 집진기와 고농도 악취 연소시설(RTO)을 가동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엄격히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폐수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설명이 끝난 후 마을 주민들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을 이어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현대자동차, 9월 대규모 신입 채용 실시

연구개발·IT 등 6개 부문 홈페이지서 지원서 접수

현대자동차가 SDV(소프트웨어 중심차량), AI(인공지능), 로보틱스 등 미래 신사업을 주도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신입 채용에 나선다.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상담회 등 지원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현대차는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전 부문이 참가하는 대규모 신입 채용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대규모 채용 기조를 이어간다. 모집 분야는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총 6개 부문으로, 전체 채용 공고는 92개에 달한다.

현대차는 예비 지원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미래 인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경우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

다. 지원자의 잠재력과 역량을 적극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9월 10일 서울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현장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팀 현대 커리어 라운지’를 개최하며, 우수 참여자에게 이번 채용의 서류전형을 면제해 주는 ‘H+슈퍼패스’ 혜택을 제공한다. 서류전형 문턱을 낮추주는 기회인 만큼, 지원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9월 2일에는 지원자들의 채용 전형 및 직무 이해를 돕기 위한 유튜브 라이브 설명회를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4일부터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구성원 각자의 역량과 가능성이 모여 더 큰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

한국인 장을 위한 **맞춤형 유산균**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특허 유래
K-낙산균
(제10-1773059호)

엄선한 설계
4중 포물러

無 화학 부형제
4-FREE

문의전화 | **1588-8529**

